

선생님과 또래 중 누구를 신뢰할까? 교사의 정확성이 낮거나 불분명한 상황에서의 유아의 선택적 신뢰

정 지 인*

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학과

정보 제공자가 이전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했는지의 여부는 그 사람이 주는 정보의 신뢰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인이다. 본 연구에서는 교사가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했거나, 또래보다 더 정확하다는 정황이 분명하지 않을 때, 그리고 교사가 일반 성인과 비교될 때 유아들의 선택적 신뢰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교사가 이전에 부정확하고 또래 유아가 정확했던 조건에서 만 4, 5세 유아들은 장난감에 대해서는 또래 유아가 주는 정보를 더 신뢰하였으나, 물건에 대해서는 또래 유아를 선택 더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건에서 만 3세 유아들은 사물의 종류에 상관없이 우연 수준으로 또래 유아를 신뢰하는 경향을 보였다. 흥미롭게도, 교사가 부정확했고 또래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알 수 없거나, 또래 유아가 정확했고 교사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모호한 상황들에서 모든 연령의 유아들은 사물의 종류와 상관없이 선택 또래 유아를 더 신뢰하지 않았다. 4, 5세 유아들이 일반 성인보다 교사를 더 신뢰할 수 있다는 결과와 함께, 사회 규범이나 연장자, 교사와의 조화로운 관계를 중요시하는 문화가 유아들의 교사에 대한 신뢰에 줄 수 있는 영향력에 대해 논의한다.

주요어 : 선택적 신뢰, 교사와 또래, 정확성, 문화

* 교신저자 : 정지인, 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학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E-mail: jeongjee98@gmail.com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배우고 습득하는 지식 중에는 본인의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얻어지는 것들도 많지만 타인으로부터, 또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배우는 것들도 많다. 이것은 유아들의 학습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유아의 지각이나 직접적 경험이 지식의 구성에서 근본적으로 중요하기는 하나(Bruner, 1973; Wellman & Gelman 1998), 다른 사람에게서 배우는 지식과 정보 역시 유아들의 학습에서 중요한 부분이 된다(Gelman, 2009). 최근의 발달 연구들은 유아들이 타인에게서 주어지는 정보를 어떻게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고 배우는지에 대해 주목해오고 있다(최영은, 2016; Sabbagh, Koenig, & Kuhlmeier, 2017 참고). 이러한 연구들은 유아들이 정보를 무분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정보제공자의 이전의 정확성이나 지식 상태(고연정, 최영은, 2013; Jeong & Frye, 2018; Birch, Vauthier, & Bloom, 2008; Koenig & Harris, 2005), 정보 제공자가 본인에 속한 집단의 일원인지의 여부(Corriveau, Kinzler, & Harris, 2013; Kinzler, Corriveau, & Harris, 2011), 정보제공자와의 친숙함(Corriveau & Harris, 2009; Corriveau et al., 2009), 정보제공자의 친절(Niceness)이나 정직(Honesty)을 비롯한 특질(Landrum, Mills, & Johnston, 2013; Lane, Wellman, & Gelman, 2013)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특히, 많은 연구들을 통해, 정보 제공자가 이전에 정확한 정보를 주었는지의 여부는 유아들의 선택적 신뢰와 학습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irch, Vauthier, & Bloom, 2008; Corriveau, Meints, & Harris, 2009; Ma & Ganea, 2010; Ganea, Koenig, & Millet, 2011). 이 연구들은 만 3세에서 4세 유아들이

상대방이 이전에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였던 사람인지 아닌지에 근거하여 정보를 선택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예를 들어, 익숙한 사물의 이름을 정확하게 지칭했던 정보 제공자(예: 공을 ‘공’이라고 지칭했음)와 틀리게 지칭했던 정보 제공자(예: 공을 ‘말’이라고 지칭했음)가 새로운 사물에 대해 서로 다르게 지칭할 때(예: 한 사람은 오른쪽에 있는 물건을 보고 ‘Ferber’라고 지칭하고 다른 한 사람은 왼쪽에 물건을 보고 ‘Ferber’라고 지칭함), 만 3, 4세 유아들은 정확한 정보를 주었던 정보 제공자가 지칭한 물건을 ‘Ferber’라고 가리키는 양상을 보였다(Birch et al., 2008). 이와 유사하게, Corriveau 등(2009)의 연구에서도 이전에 정확한 정보를 주었던 사람과 부정확한 정보를 주었던 사람이 새로운 물건을 다르게 지칭할 때, 만 3세와 4세 모두 정확한 정보를 주었던 사람이 지칭한 명칭을 고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보 제공자의 정확성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그 정확성에 변화가 생기는지, 상대적으로 누가 더 정확한지에 대해 고려하는 능력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정선아, 최영은, 2013; Corriveau, Meints, & Harris, 2009; Koenig & Harris 2005; Pasquini, Corriveau, Koenig, & Harris, 2007). 예를 들어, 만 4세 유아들은 정보 제공자의 상대적 정확성(예: 한 사람은 75%의 경우에서 정확하고 다른 한 사람은 항상 부정확한 경우)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더 정확했던 사람에게 더 신뢰를 보였던 반면, 만 3세 유아들은 상대방이 100% 정확했을 때에만 그 사람을 더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asquini et al., 2007). 또한 만 3세 유아들이 정확한 정보를 주던 사람이 부정확하게 변하는지, 반대로 부정확한 정

보를 주던 사람이 정확하게 변하는지와 관련 없이 상대방을 맹목적으로 신뢰하였던 반면, 만 4세 유아들은 정보 제공자의 정확성에 변화가 있는지를 반영하여 적절하게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연정, 최영은, 2013).

더불어, 두 정보 제공자의 정확성을 명확하게 비교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만 4세 유아들은 3세와는 달리, 정보 제공자의 정확성과 부정확성 모두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신뢰할 사람을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orriveau et al., 2009). 이 연구에서 정보 제공자 두 명 중 한 명이 이전에 부정확했었던 조건에서는, 나머지 정보 제공자가 정확했었는지 아니면 정확성에 대해서 알 수 없는지(예: “내가 한 번 볼게”와 같은 중립적인 말만 하였음)와 관계없이 만 3, 4세 모두 이전에 부정확했었던 정보 제공자를 신뢰하지 않았다. 그러나 한 사람은 정확하고, 다른 한 사람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만 4세 유아는 이전에 정확했던 사람을 더 신뢰하였던 반면, 만 3세 유아는 그 어느 쪽에도 우연 수준 이상의 특별한 신뢰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만 3세 유아는 상대방이 이전에 부정확했었는지에만 초점을 두고, 부정확하지 않았으면 으레 정확한 사람일 것이라고 추정하는 반면, 만 4세 유아는 상대방의 부정확성뿐만 아니라 정확성도 같이 고려하여 더 합리적으로 정보를 판단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종합하면, 만 3세 유아들도 어느 정도는 정보 제공자의 정확성에 따라 정보를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으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 선택적 신뢰는 연령이 증가하면서 더 발달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선택적 신뢰와 관련한 몇 연구들은 정보 제공자의 정확성에 연령이라는 요소가

더해질 때, 유아들의 선택적 신뢰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Jaswal & Neely, 2006; VanderBorghet & Jaswal, 2009). 성인 정보 제공자와 유아 정보 제공자 모두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했던 조건에서, 만 3, 4세 미국 유아들은 성인이 주는 정보를 더 신뢰하였다(Jaswal & Neely, 2006). 이와 유사하게, 일반적인 상황에서 유아들은 또래보다는 성인이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ylor, Cartwright & Bowden, 1991; Lampinen & Smith, 1995). 그러나 성인이 부정확한 정보를 주고(예: 신발을 ‘유리잔’이라 지칭함), 또래 유아가 정확한 정보를 주었던(예: 신발을 ‘신발’이라고 지칭함) 상황에서는, 만 3, 4세 유아 모두 또래 유아가 주는 정보를 신뢰하는 경향을 보였다. 즉, 정보 제공자의 연령과 정보의 정확성이 상충할 때, 미국 유아들은 정보의 정확성을 더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러나 위의 연구는 개인적 가치나 선택에 대한 존중이 크게 강조되는 서구 사회에서 이루어졌으며, 때문에, 위계질서나 윗사람에 대한 순응과 예의가 중요시되는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가능성과 관련하여, 정소미와 최영은(2017)은 Jaswal과 Neely(2006)가 사용한 실험 설계를 활용하여 한국 유아들의 선택적 신뢰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성인이 부정확한 정보를 반복해서 제공하고, 또래 유아가 정확한 정보를 반복하여 제공하였을 때, 한국의 만 3세 유아들은 우연 수준으로 또래 유아가 주는 정보를 신뢰하였다. 그리고 만 4, 5세가 되어서야 한국 유아들은 미국 유아들과 유사하게 부정확했던 성인보다는 정확했던 유아를 더 신뢰하게 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에서는 정보 제공자의 연령과 정보의 정확성이 상충하는 상황에서, 정보의 정확성에 기반을 둔 선택적 신뢰가 다소 늦게 발달할 수 있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만약 다른 연구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난다면, 한국 유아들의 정보의 정확성에 기반을 둔 선택적 신뢰가 발달하는 양상을 검증해 볼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될 것이다.

또한 정보 제공자가 이전 연구들에서 소개된 바와 같이 어머니 아빠와 같은 일반적인 어른으로 소개되지 않고, 선생님이 소개된다면 유아들의 선택적 신뢰가 위계나 권위에 의한 영향을 받는 가능성에 대해 좀 더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정소미, 최영은, 2017). 유아들에게 교사는 가정 밖에서 꾸준히 만나는 가장 중요한 성인 중 하나이며, 따라서 교사라는 존재가 선택적 신뢰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질문은 유아들의 사회적 학습을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교사의 정확성이 또래보다 더 낫다는 정황이 확실하지 않을 때 유아들의 선택적 신뢰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 살펴본다면, 유아들이 또래와 교사를 정보 제공자로서 어떻게 개념화하는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예컨대 Corriveau 등(2009)의 연구에서는 정확성의 비교가 모호한 상황에서도, 만 4세경부터 유아들이 정보 제공자의 부정확성과 정확성 모두를 고려하여 선택적 신뢰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우리나라 유아들을 대상으로 교사와 또래 유아간의 비교에 적용된다면 어떤 양상이 나타날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교사가 이전에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였고 또래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상황이

라면, 또는 또래 유아가 이전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했던 반면, 교사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 유아들은 또래와 교사 중 누가 주는 정보를 더 신뢰하게 될까? 이렇게 둘 간의 정확성이 명확히 대조되지 않고 그저 한 사람의 정확성, 또는 부정확성만 드러나는 상황을 살펴본다면, 정확성과 교사-또래간의 비교 사이에서 유아들의 선택적 신뢰가 나타나는 양상에 대해 보다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유아들의 선택적 신뢰는 구하는 정보가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만 3세에서 5세의 미국 유아들은 장난감에 대한 질문인지(예: 이 장난감을 어디에서 가지고 놀 수 있는지), 아니면 음식에 대한 질문인지(예: 이 음식이 왜 몸에 좋은지)에 따라 누구에게 질문을 할 것인지에 대해 달리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VanderBorghet & Jaswal, 2009). 즉, 음식에 대한 질문인 경우에는 어른에게, 장난감에 대한 질문은 또래 유아에게 묻고 싶어 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4, 5세 유아들도 인지적 업무에 분과(Division of cognitive labor)가 있으며(Lutz & Keil, 2002), 특정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꼭 다른 분야에 대한 지식의 보유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oenig & Jaswal, 2011; Kushnir, Vredenburg, & Schneider, 2013). 즉, 유아들도 구하는 정보에 따라 성인보다 또래가 더 나은 정보 제공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이해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 역시 미국을 비롯한 서구 사회에서 진행된 연구인만큼, 한국 유아들의 선택적 신뢰에서도 이러한 양상이 나타나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정보 제공자가 선생님과

또래 유아로 소개되는 상황에서, 그리고 특히나 선생님이 이전에 부정확하였거나 또래보다 더 나은 지식을 가졌다고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유아들의 선택적 신뢰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유아들이 일반 성인보다 교사가 주는 정보를 더 신뢰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교사와 일반 성인 모두 정확한 상황에서 유아들이 누가 주는 정보를 더 신뢰하는지에 대해서도 추가로 살펴보았다. 더불어, 구하는 정보로서 일반적인 물건뿐만 아니라 장난감의 명칭도 포함시켜, 어떤 물건에 대한 정보를 구하는지에 따라 유아들의 선택적 신뢰가 달라지는지에 대해 검증하였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경기도 지역의 유치원 두 곳에 다니고 있는 만 3세에서 5세 유아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총 만 3세 23명(남 14명, 여 9명, $M = 3.58$ 세, $SD = .23$), 만 4세 18명(남 10명, 여 8명, $M = 4.42$, $SD = .31$), 만 5세 18명(남 11명, 여 7명, $M = 5.47$, $SD = .29$)이 참여하였으며, 해당 유치원에 연구 설명서와 동의서를 배부한 후, 학부모의 서면 동의가 있었던 유아들에 한해 연구가 진행되었다.

연구과제 및 절차

측정은 유치원 내의 조용한 공간에서 연구자와 유아의 일대일 면접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각 유아별로 25분 이내로 소요되었다. 유

아들은 총 네 가지 조건에서 두 정보 제공자 중 누가 이야기 하는 사물의 명칭을 신뢰하는지에 대해 질문 받았으며, 그 중 세 가지 조건에서는 교사와 또래 유아가 대조되었고, 나머지 한 가지 상황에서는 교사와 일반 성인이 대조되었다. 즉, 교사는 부정확했고 또래 유아는 정확했던 조건(T-, C+), 교사가 부정확했고 또래 유아의 정확성은 알 수 없는 조건(T-, C?), 교사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알 수 없고 또래 유아는 정확했던 조건(T?, C+), 그리고 교사와 일반 성인 모두 정확했던 조건(T+, A+) 이 포함되었다.

유아들에게는 “이제부터 새로운 물건과 새로운 장난감 이름을 맞추는 게임을 할 거야. 이 컴퓨터에 이름 맞추기 게임을 도와줄 수 있는 선생님과 친구들이 나올 건데 같이 한번 볼까?”라고 이야기 하며 면접을 시작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파워포인트 슬라이드에 정보 제공자의 사진과, 물건(또는 장난감) 사진, 그리고 음성 파일을 담아 두 정보 제공자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파워포인트 슬라이드의 왼쪽에는 또래 유아의 사진을, 오른쪽에는 성인 사진을 배치하고, 각각 “이 친구는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친구야. 너처럼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야”, “이 분은 ***선생님(학급의 선생님 이름)처럼 **유치원에서 어린이들을 가르치시는 선생님이야.”라고 소개하였다. 이 때 화면에 등장하는 또래 유아는 참여하는 유아와 동성으로 하였으며, 교사는 유아교육기관의 교사가 대부분 여성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항상 여성으로 제시하였다 (실제 연구가 진행된 기관의 교사도 모두 여성이었음). 또한 정보 제공자의 매력도가 만 4, 5세 유아의 선택적 신뢰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Bascandziew & Harris, 2014)를 고려하여,

매력도가 유사한 정보 제공자들의 사진을 사용하였으며, 모든 조건의 사진에서 모든 정보 제공자들은 미소를 띠고 있었다. 도구 제작 후에는 심리학 전공자 2인의 검토를 받았다.

그 후, 화면 가운데 아래쪽에 유아들에게 익숙한 사물의 사진을 3개 띄우고(예: 컵, 사과, 자동차), 미리 녹음해둔 음성 파일을 통해 각 정보 제공자가 익숙한 사물을 어떻게 지칭하는지 들려주었다. 예를 들어, (T-, C+)에서는 화면 아래쪽에 컵 사진을 띄우고 교사가 “이 물건은 ‘책상’이야.”이라고 지칭하고, 또래 유아는 “이 물건은 ‘컵’이야.”이라고 지칭하는 것을 들려주었다. 이런 식으로 사과, 자동차에 대해 교사는 부정확하게 지칭하고, 또래 유아는 정확하게 지칭하는 상황을 제시하였다.

그 후 교사와 또래 유아 사진이 화면에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연구자는 “선생님은 물건 이름을 맞게 이야기 하셨니?”, “이 친구는 물건 이름을 맞게 이야기 하였니?”라고 이야기 하며 유아들이 각 정보 제공자의 정확성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였는지 물어보았다. (T-, C+)조건에서 2명의 만 3세 유아가 교사와 또

래 모두 정확하게 물건이름을 이야기 하였고 대답하였으나, 음성 파일을 다시 들은 후에는 제대로 파악할 수 있었다.

그 후, 화면 가운데에 새로운 사물의 사진을 띄우고 유아에게 “여기 새로운 물건(장난감)이 있거든. 너는 이게 뭔지 알고 있니?”라고 물으며 유아들의 관심을 유도하였다. 그림 1에서 보이듯, 생김새나 색채에서 명확히 장난감처럼 보이거나, 일반 물건으로 보이는 새로운 사물의 사진을 사용하였으며, 연구자와 각 정보 제공자는 해당 사물을 ‘물건’ 또는 ‘장난감’이라고 지칭함으로써, 해당 사물의 범주에 대해 유아들이 자연스럽게 들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 후 연구자가 “여기 있는 선생님과 친구 중 한명이 이 물건(장난감)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을 거야. 친구와 선생님이 이 물건(장난감)에 대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들어볼까?”라고 이야기 하며 새로운 물건을 두고 두 정보 제공자가 각각 다르게 지칭하는 음성 파일을 들려주었다. 예를 들어, 또래 유아는 “이 물건(장난감)은 ‘도파’라고 해. 도파”라고 지칭하고,



그림 1. 연구에 사용된 사물의 예시
(상단은 새로운 물건의 예, 하단은 새로운 장난감의 예)

교사는 “이 물건(장난감)은 ‘모다’라고 해. 모다.”라고 지칭하였다. 그 후, 연구자가 “이 친구는 이 물건(장난감)이 ‘도파’라고 하였는데, 선생님은 ‘모다’라고 하시네. 누구 말이 맞는 걸까?”라고 물어보며 유아가 누가 주는 정보를 더 신뢰하는지 기록하였다.

(T-, C?)조건에서는 새로운 교사와 또래 유아쌍이 등장하여, 교사가 익숙한 물건을 부정확하게 지칭하고 또래 유아는 “내가 한 번 볼게”와 같이 중립적인 이야기만을 하는 상황을 보여주었다. 컴퓨터 화면 가운데 아래쪽에 익숙한 물건(예: 의자, 포크, 칫솔)을 띄운 후, 교사가 각각 ‘사다리’, ‘연필’, ‘지우개’라고 부정확하게 지칭할 때, 또래 유아는 “내가 한 번 볼게” “내가 한 번 볼까” “내가 한번 다시 볼게”와 같이 중립적인 이야기만을 하였다. 그 후, 연구자는 유아들에게 교사가 물건 이름을 맞게 이야기 하였는지 물어보았고, 모든 유아들이 교사가 정확하지 않았음을 잘 인식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 후, 새로운 물건과 장난감 사진을 화면 가운데에 제시하고, 교사와 또래 유아가 각각 다르게 지칭하는 상황을 보여주고, 유아들이 누가 주는 정보를 신뢰하는지 기록하였다.

이런 식으로, (T?, C+)에서는 또 다른 교사와 또래 유아쌍이 등장하여 교사는 익숙한 사물에 대해 중립적인 이야기만 하고, 유아는 정확하게 지칭하는 상황을 보여주었다. (T+, A+)조건에서는 일반 성인에 대해 “이 분은 엄마, 아빠 같은 어른이야. 이 집에 살고 있어.”라고 이야기 하며 집 배경과 함께 사진을 제시하였다. 교사에 대해서는 “이 분은 **유치원에서 어린이들을 가르치시는 선생님이야.”라고 이야기 하며 유치원 배경과 함께 사진을 제시하였다. (T+, A+) 조건에서는 한 명은 교사이

고 다른 한 명은 일반 성인임을 명시하기 위해 집과 유치원 배경 사진을 각각의 정보 제공자사진 옆에 남겨두었다. (T?, C+), (T+, A+)조건에서도 각각의 정보 제공자의 정확성을 보여준 후 연구자가 교사와 또래 유아 사물의 이름을 제대로 말하였는지 유아들에게 질문하였고, 모든 유아들은 어려움 없이 정보 제공자의 정확성에 대해 파악할 수 있었다. 그 후 두 정보 제공자가 새로운 물건과 장난감에 대해 각각 다르게 지칭하는 것을 들려준 후, 유아들이 누가 이야기하는 명칭을 신뢰하는지 기록하였다.

한 조건에서 등장했던 정보 제공자는 다른 조건에서는 전혀 등장하지 않았으며, 조건이 바뀔 때마다 그 이전에 등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유아-교사 쌍, 또는 교사-성인 쌍이 등장하여 상황이 바뀌었음을 유아들이 알 수 있도록 하였다. 네 가지 조건이 유아들에게 주어지는 순서는 무작위로 결정되었다. 한편, ‘새로운 물건-> 새로운 장난감-> 새로운 물건-> 새로운 장난감’의 순서로 주어지는지, 또는 ‘새로운 장난감-> 새로운 물건-> 새로운 장난감-> 새로운 물건’의 순서로 주어지는지의 여부는 유아간 역균형화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의 정확성과 부정확성에 기반을 두고 선택적 신뢰를 하는지에 대해 보기 위해, (T-, C+), (T-, C?), (T?, C+) 모든 조건에서 또래 정보 제공자가 주는 정보를 신뢰하는 경우 1점, 교사 정보 제공자가 주는 정보를 신뢰하는 경우에는 0점으로 코딩하였다. (T+, A+)조건에서는 교사가 주는 정보를 신뢰한 경우에 1점, 일반 성인이 주는 정보를 신뢰한 경우에 0점으로 코딩하였다. 각 조건에서 새로운 물건과 장난감이 각각 두 개씩 등장하였으므로, 새로운 물건과 새로운 장난감

에 대한 선택의 점수는 각각 0-2가 되었다.

결 과

교사와 또래 유아를 비교했던 (T-, C+), (T-, C?), (T?, C+)조건에서의 유아들의 선택적 신뢰는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통해 함께 분석하였다(그림 2 참고). 조건에 따라, 연령 집단에 따라, 유아의 성별에 따라, 그리고 사물의 종류(일반적인 물건인지 장난감인지)에 따라 유아들의 선택적 신뢰가 달라지는지 살펴보기 위해, 유아들이 또래를 선택한 점수를 종속 변수로, 조건과 종류를 참여자내 변수로, 그리고 유아들의 연령 집단과 성별을 참여자간 변수로 하여 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조건에 의한 효과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F(2, 59) = 4.095, p < .05$.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각 조건을 대비검정 한 결과, 유아들은 (T?, C+)인 조건($M = .86, SD = .78$)에서보다 (T-, C+)인 조건($M = 1.18, SD = .82$)에서 또래 유아가 이야기한 명칭을 더 신뢰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즉, 교사의 정확성에 대해 알 수 없고 또래 유아는 정확했던 조건보다, 교사가 확실히 부정확하고 또래 유아가 정확했던 조건에서 또래 유아를 더 신뢰하였다.

교사와 또래 유아 중 또래 유아를 더 신뢰한 유아들의 평균을 우연 수준(50%)과 비교한 결과, 만 3세 유아는 (T-, C?)조건에서 물건에 대한 정보를 들었던 상황에서 우연 수준보다 낮게 또래 유아를 신뢰하였다($M = .61, SD = .78, t(23) = -2.39, p < .05$), 그러나 나머지 조건에서는 모두 우연 수준으로 또래 유아를 신뢰하였다. 만 4세 유아는 (T-, C+)조건에서 장난감의 명칭에 대해 들었던 상황에서 우연 수준보다 높게 또래 유아가 이야기한 명칭을 신뢰하였으며($M = 1.44, SD = .81, t(18) = 2.150, p < .05$), 나머지 조건에서는 모두 우연 수준으로 응답하였다. 만 5세 역시 (T-, C+)조건에서 장난감에 대한 정보를 들었을 때에는 또래 유아를 우연 수준보다 높게 신뢰하였으나($M = 1.40, SD = .71, t(18) = 2.10, p < .05$), 나머지 조건에서는 모두 우연 수준으로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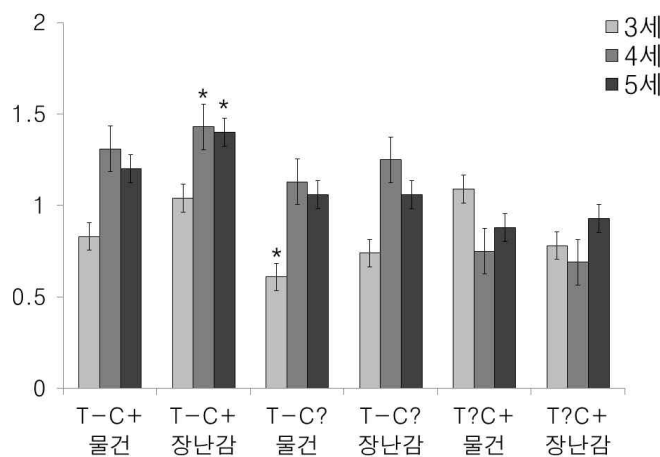


그림 2. 각 연령의 유아가 또래 유아를 신뢰하는 점수의 평균(오차 막대는 평균의 표준오차)

한편, 교사와 일반 성인을 비교한 (T+, A+) 조건에서의 유아들의 응답은, 유아들이 교사를 신뢰한 점수를 종속 변수로, 사물의 종류를 참여자내 변수로, 연령 집단과 성별을 참여자간 변수로 하여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그림 3 참고). 그 결과, 사물의 종류에 따라 교사에 대한 신뢰가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1, 59) = 5.274, p < .05$. 유아들은 전반적으로 장난감의 명칭보다 ($M = 1.23, SD = .78$) 일반적인 물건의 명칭일 때($M = 1.44, SD = .70$) 교사가 주는 정보를 더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T+, A+)조건에서 각 연령의 유아들이 교사를 신뢰한 점수 역시 우연 수준과 비교하였다. 그 결과, 만 3세는 일반적인 물건의 명칭이든, 장난감의 명칭이든, 우연 수준에서 교사가 주는 정보를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일반 성인과 교사 중 어느 존재에게도 더 특별한 신뢰를 보이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만 4세 유아는 일반적인 물건인 경우와($M = 1.54, SD = .64, t(18) = 4.45, p < .001$), 장난감인 경우($M = 1.32, SD = .67, t(18) = 2.54, p < .05$) 모두에서 우연 수준보다 높게 교사가 주는 정보를 신뢰하였다. 5세 유아들

은 일반적인 물건의 명칭에 대해서는 우연 수준보다 높게 교사가 주는 정보를 신뢰하였으나($M = 1.55, SD = .63, t(18) = 4.70, p < .001$), 장난감의 명칭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는 우연 수준으로 교사가 주는 정보를 신뢰하였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교사의 정확성이 또래 유아보다 낮거나, 또래 유아보다 더 높다는 정확성이 분명하지 않을 때, 유아들의 선택적 신뢰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특히, 구하는 정보가 일반적인 사물의 명칭인지, 아니면 장난감의 명칭인지에 따라 유아들의 선택적 신뢰가 달라지는지를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더불어 교사가 일반 성인과 비교될 때 유아들이 어떤 사람이 주는 정보를 신뢰하는지 살펴봄으로써, 유아들이 정보 제공자로서 교사를 더 신뢰하는 경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그 결과, 유아들은 교사가 부정확하다는 정확성이 없을 때보다는, 교사가 부정확하고 또래 유아가 정확했던 조건에서 또래 유아를 더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구하는 정보가 새로운 물건의 명칭인 경우에는, 모든 연령의 유아들이 어떤 조건에서도 선뜻 또래 유아를 교사보다 더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사와 또래 유아의 정확성에 대한 비교가 모호하였던 조건들에서는 물론(T-, C?; T?, C+), 또래 유아가 교사보다 더 정확하였던 조건(T-, C+)에서조차 모든 연령의 유아들은 또래 유아가 이야기 하는 사물의 명칭을 선뜻 더 신뢰하지 않았다. 그러나 또래 유아가 교사보다 명확히 더 정확하였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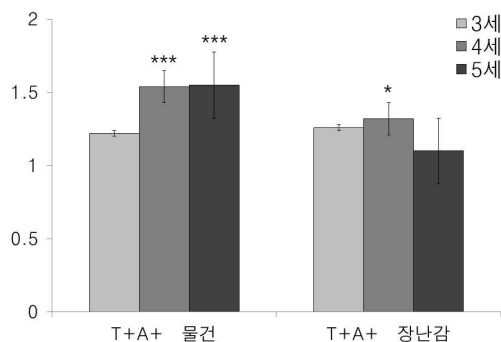


그림 3. 각 연령의 유아가 교사를 신뢰하는 점수의 평균(오차 막대는 평균의 표준오차)

조건에서(T-, C+), 장난감에 대한 정보를 구할 때, 만 4, 5세 유아는 교사보다 또래 유아를 더 신뢰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교사를 일반 성인보다 더 신뢰하는 경향은 만 4세, 5세에서 나타났으며, 특히 만 4세 유아들은 사물의 종류와 상관없이 교사가 주는 정보를 더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또래 유아가 이전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할지라도, 교사가 이 유아보다 정확성의 측면에서 뒤진다는 정황이 확실히 없는 한, 유아들이 선택 또래를 더 신뢰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Corriveau 등(2009)의 연구에서 나타난 만 3세 유아들의 경향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Corriveau 등(2009)의 연구에서 한 사람은 정확하고 다른 한 사람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알 수 없을 때, 만 3세 유아들은 우연 수준으로 이전에 정확했던 사람을 더 신뢰하였다. 이는 만 3세 유아들은 정보 제공자가 부정확하지 않는 이상 오래 정확하다고 간주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T?, C+)조건에서는 심지어 교사가 부정확하다는 증거가 없었고, 때문에 만 3세 유아뿐만 아니라 모든 연령의 유아들이 그저 우연 수준으로 또래 유아를 신뢰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만 4세 이전에는 교사보다 또래 유아가 더 정확했던 조건에서도 또래 유아를 선택 더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만 3세 유아는 교사와 또래 유아의 정확도가 분명히 대비되는 (T-, C+)조건에서도, 물건의 명칭에 대한 것이든 장난감의 명칭에 대한 것이든 그저 우연 수준으로 또래 유아가 주는 정보를 신뢰하였다. 이러한 만 3세의 경향은 부정확한 성인과 정확한 또래 사이에서의 선택적 신뢰에 대해 다른 정소미, 최영은(2017)의 연구 결과와

도 일치한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종합할 때, 한국의 만 3세 유아들은 성인이 일반적인 어른인지 아니면 교사인지와 관련 없이, 성인보다 또래 유아가 더 정확했던 경우에서도 또래 유아를 선택 더 신뢰하지는 않는다고 볼 수 있다.

한편, (T-, C+)조건에서 구하는 정보가 새로운 장난감의 명칭이었던 상황에서 만 4, 5세 유아들은 이전에 부정확했던 교사보다 정확했던 또래 유아를 더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들이 구하는 정보에 따라(예: 장난감에 대한 것인지 음식에 대한 것인지) 성인에게 물어볼 것인지, 또래 유아에게 물어볼 것인지를 달리 판단했던 이전 연구의 결과(VanderBorghet & Jaswal, 2009)와도 유사한 맥락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4세 이상의 유아들은 기본적으로 한 영역에 대한 지식이 다른 영역에 대한 지식으로 반드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에(Koenig & Jaswal, 2011; Kushnir et al., 2013; Lutz & Keil, 2002), 본 연구에서 만 4, 5세 유아들의 선택적 신뢰가 구하는 정보에 따라 달라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구하는 정보가 일반적인 물건이었던 상황에서는 만 4, 5세 유아들도 3세 유아들과 마찬가지로 (T-, C+), (T-, C?), (T?, C+) 모든 조건에서 또래 유아를 교사보다 선택 더 신뢰하지 않았다. 국내외의 다양한 연구들에서(고연정, 최영은, 2013; 정소미, 최영은, 2017; Birch et al., 2008; Ganea et al., 2011; Ma et al., 2010) 만 4, 5세 유아들이 꽤나 일관적으로 정보 제공자의 정확성에 기반을 두고 어떤 정보를 신뢰할지에 대해 판단하였던 결과를 고려하면 매우 다른 양상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한국의 만 4, 5세 유아들이 부정확했

던 성인(교사가 아닌 일반 성인)보다는 정확했던 또래 유아가 제시하는 사물의 명칭을 더 신뢰하였다는 것을 고려하면(정소미, 최영은, 2017), 본 연구는 상당히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일반적인 성인이 반복적으로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면 만 4, 5세 유아들은 비교적 수월하게 그 성인이 주는 정보를 무시할 수 있었지만 본 연구에서 교사가 반복해서 부정확한 정보를 주었을 때에는 그 교사가 주는 정보를 선택 무시하지 못했다. 이러한 결과는 교사라는 존재가 지닌 특유의 권위에 대한 4, 5세 유아들의 신뢰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일반 성인과 교사 모두 정확했던 (T+, A+)조건에서 만 4, 5세 유아들은 교사가 제시하는 사물의 명칭(특히 일반적인 물건의 명칭)을 더 신뢰하였고, 이는 정보 제공자로서 일반 성인보다는 교사를 더 신뢰함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러한 교사에 대한 신뢰 때문에 부정확했던 교사가 주는 정보마저도 선택 무시할 수 없게 된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사실 유아들은 일반적으로 또래보다는 성인이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며(Taylor et al., 1991), 또래보다는 성인이 제시하는 정보에 의해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고 알려져 왔다(Lampinen & Smith, 1995).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는 교사라는 존재가 한국 유아들에게 단순히 성인 이상의 의미를 지닐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Corriveau와 Harris(2009)는 보통 일상생활에서 교사가 유용하고 정확한 지식을 자주 전달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험의 축적이 교사가 주는 지식에 대한 선호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본 연구에서 등장한 교사 정보 제공자들이 참여 유아들을 실제로 가르쳤던 교사들은 아니었으나, 유아

들이 평소 교사로부터 다양한 지식이나 기술, 생활 습관, 태도 등을 배운다는 것을 고려할 때, 교사라는 존재 자체에 대한 신뢰가 본 연구에서도 적용되었다고 해석해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교사에 대한 신뢰가 유아를 둘러싼 사회 문화적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성인 정보 제공자가 계속하여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또래 정보 제공자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였을 때, 미국의 만 3세, 4세 유아들은 또래 정보 제공자가 주는 정보를 더 신뢰하였다(Jaswal & Neely, 2006). 물론 이 연구는 교사와 또래 유아를 정보 제공자로서 비교한 연구는 아니지만, 본 연구의 결과와 큰 대조를 이룬다는 점에서 사회 문화적 영향에 따라 성인, 특히 교사에 대한 신뢰가 발달하는 양상이 다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더불어, 미국의 만 5세 유아들은 정보 제공자가 본인에게 익숙한 교사인지에 대한 부분보다 정확한 정보를 주었는지에 기반을 두고 정보를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orriveau & Harris, 2009). Corriveau와 Harris(2009)의 연구에서 미국의 만 5세 유아들은 본인이 다니는 유치원의 교사가 반복적으로 부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다른 유치원의 교사(다른 유치원 선생님이라고 소개됨)가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였을 때, 다른 유치원의 교사가 주는 물건의 명칭을 더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본 연구에서 한국의 만 5세 유아들은 본인들이 개인적으로 모르는 교사가 반복적으로 부정확한 정보를 주고 또래 유아가 정확한 정보를 주었던 상황에서 물건의 명칭과 관련하여 또래 유아를 더 신뢰하지 않았다.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여러 가지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사회 문화적 영향 속에서

교사에 대한 선택적 신뢰가 다른 양상으로, 또는 다른 속도로 형성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내려볼만 하다.

미국이나 유럽을 비롯한 서구 사회에서는 개인주의적 문화가 강조되고, 자기표현, 독립성의 확보가 인간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여겨져 왔다(Harwood, Handwerker, Schoelmerich & Leyendecker, 2001; Kagitçibasi, 1996). 또한 대학교육을 받은 유럽계 미국인 부모의 자녀 양육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는 아동이 행동과 생각의 측면에서 타인으로부터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지닌 존재로서 자라도록 돕는 것이라고 보고되어 왔다(Rogoff, 2003). 이러한 사회에서 자란 유아들은 교사를 비롯한 권위의 대상이 제시하는 의견이나 정보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본인 나름의 선택을 모색할 가능성이 클 수 있다.

이에 비해, 동양 문화권에서는 상대적으로 집단 안에서의 조화와 상호의존적 관계가 중요시 되어왔다(Chao, 1995; Gabrenya & Hwang, 1996; Yum, 1988). 이러한 경향은 유아들의 집단에 대한 동조에도 영향을 주어, 유럽계 미국 유아들에 비해, 동양계 미국 유아들이 집단이 주는 정보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Corriveau & Harris, 2010; Corriveau, Kim, Song, & Harris, 2013). 또한 많은 동아시아권 사회에서 사회적 규범에 대한 준수는 중요한 덕목으로 여겨졌으며 (Kim & Markus, 1999; Yang, 1981), 따라서 전통이나 사회 규범, 연장자, 교사에 조화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은 교육과 양육에서 중요한 목표 중 하나였다(Chao, 1994; Crystal, 1994). 이러한 문화에서 자란 유아들이라면, 교사라는 존재가 주는 정보에 대해 더 강한 선호나 신뢰를 가질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정황이 본

연구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생각해볼만 하다. 물론, 선택적 신뢰에서의 문화적 영향력에 대해 정확히 다루기 위해서는, 유사한 설계의 해외 연구나 해외 자료와의 직접적인 비교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교사가 정확하지 않거나, 또래 유아보다 정확성의 측면에서 더 낫다는 정황이 분명하지 않을 때, 유아들의 선택적 신뢰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특히, 기존의 연구들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또래와 교사간의 비교와 함께, 유아들의 정보에 대한 판단이 구하는 정보의 종류(유아들에게 더 친숙한 소재인지 중립적인 사물인지)에 따라 달라지는지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T+, C+)와 같이 기본이 될 수 있는 조건을 포함하지 않아 유아들의 응답을 기본 조건과 비교하여 살펴보지 못하였다. 후속연구에서 (T+, C+)조건을 포함하여 분석한다면, 본 연구에서 나타난 유아들의 우연 수준의 선택적 신뢰에 대해 보다 면밀하게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누구 말이 맞는 걸까?”와 같은 발문을 통해 유아들이 어떤 정보를 선택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으나, 유아들이 그 정보를 실제로 받아들이고 활용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대부분의 유아들은 “선생님이요” 또는 “이 친구요”라고 이야기하거나 손가락으로 정보 제공자를 가리켰으나 일부 유아들은 “선생님이요. 모디”와 같이 그 정보 제공자가 이야기 한 사물의 명칭까지 포함하기도 하였다. 후속 연구에서 두 정보 제공자가 이야기한 사물의 지칭을 듣고, 유아들이 그 지칭을 기억하거나, 그 정보를 물건을

찾는데 활용하는지에 대해 살펴본다면, 유아들의 선택적 신뢰가 실제 학습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본 연구는 실험적 상황에서 유아들이 또래 유아와 교사를 정보 제공자로서 어떻게 비교하는지에 대해 다루었으나, 이러한 선택적 신뢰가 실제 생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 보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Corriveau와 Harris (2009)의 연구에서와 같이 실제 교사나 개인적인 친구가 연루되어 있는 상황에서 유아들이 정보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내리는지 살펴본다면 실생활에서의 유아들의 사회적 학습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좀 더 높은 연령으로 연구 대상을 확대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만 5세 유아들도 사물의 명칭과 관련하여 이전에 부정확했던 교사가 주는 정보를 선택 못 무시하지 못하였으나, 연령이 더 높은 아동들에 대해 살펴본다면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발달적 변화에 대해서도 알아 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고연정, 최영은 (2013). 만 3세 아동의 타인 증언 신뢰 편향성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6(1), 197-214.

정선아, 최영은 (2013). 동성 및 이성 성인의 진술에 대한 만 3-4세 아동의 신뢰성 판단.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6(4), 93-105.

정소미, 최영은 (2017). 한국 아동의 신뢰성 판단에 정보제공자의 연령이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30(3), 67-82.

최영은 (2016). 의심의 기술 발달: 선택적 신뢰와 증거성 추론.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9(1), 63-82.

Bascandziev, I., & Harris, P. L. (2014). In beauty we trust: Children prefer information from more attractive informants.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32(1), 94-99.

Birch, S. A. J., Vauthier, S. A., & Bloom, P. (2008). Three- and four-year-olds spontaneously use others' past performance to guide their learning. *Cognition*, 107(3), 1018-1034.

Bruner, J. S. (1973). *Beyond the Information Given*. New York: Norton.

Chao, R. K. (1994). Beyond parental control and authoritarian parenting style: Understanding Chinese parenting through the cultural notion of training. *Child Development*, 65(4), 1111-1119.

Chao, R. K. (1995). Chinese and European American cultural models of the self reflected in mothers' childrearing beliefs. *Ethos*, 23(3), 328-354.

Corriveau, K., & Harris, P. L. (2009). Choosing your informant: Weighing familiarity and recent accuracy. *Developmental Science*, 12(3), 426-437.

Corriveau, K. H., & Harris, P. L. (2010). Preschoolers (sometimes) defer to the majority in making simple perceptual judgments. *Developmental Psychology*, 46(2), 437-445.

Corriveau, K. H., Harris, P. L., Meins, E., Fernyhough, C., Arnott, B., Elliott, L., ... Rosnay, M. De. (2009). Young children's trust in their mother's claims: longitudinal links

- with attachment security in infancy. *Child Development*, 80(3), 750-761.
- Corriveau, K. H., Kim, E., Song, G., & Harris, P. L. (2013). Young children's deference to a consensus varies by culture and judgment setting. *Journal of Cognition and Culture*, 13(3-4), 367-381.
- Corriveau, K. H., Kinzler, K. D., & Harris, P. L. (2013). Accuracy trumps accent in children's endorsement of object labels. *Developmental Psychology*, 49(3), 470-479.
- Corriveau, K. H., Meints, K., & Harris, P. L. (2009). Early tracking of informant accuracy and inaccuracy.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27(2), 331-342.
- Crystal, D. S. (1994). Concepts of deviance in children and adolescents: The case of Japan. *Deviant Behavior*, 15(3), 241-266.
- Gabrenya, W. K. Jr., & Hwang, K. (1996). Chinese social interaction: Harmony and hierarchy on the good earth. In M. H. Bond (Ed.), *The handbook of Chinese psychology* (pp. 309-321).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Ganea, P. A., Koenig, M. A., & Millett, K. G. (2011). Changing your mind about things unseen: Toddlers' sensitivity to prior reliability. *Journal of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 109(4), 445-453.
- Gelman, S. A. (2009). Learning from others: children's construction of concept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60, 115-140.
- Harwood, R. L., Handwerker, W. P., Schoelmerich, A., & Leyendecker, B. (2001). Ethnic category labels, parental beliefs, and the contextualized individual: An exploration of the individualism -sociocentrism debate. *Parenting: Science and Practice*, 1(3), 217-236.
- Jaswal, V. K., & Neely, L. A. (2006). Adults don't always know best: Preschoolers use past reliability over age when learning new words. *Psychological Science*, 17, 757-758.
- Jeong, J., & Frye, D. (2018). Information about informants' knowledge states affects children's predictions of learning and their actual learning. *Cognitive Development*, 48, 203-216.
- Kağitçibaşı, Ç. (1996). *Family and human development across cultures: A view from the other side*. Hillsdale, NJ, US.
- Kim, H., & Markus, H. R. (1999). Deviance or uniqueness, harmony or conformity? A cultural 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7(4), 785-800.
- Kinzler, K. D., Corriveau, K. H., & Harris, P. L. (2011). Children's selective trust in native-accented speakers. *Developmental Science*, 14(1), 106-111.
- Koenig, M., & Harris, P. L. (2005). Preschoolers mistrust ignorant and inaccurate speakers. *Child Development*, 76(6), 1261-1277.
- Koenig, M. A., & Jaswal, V. K. (2011). Characterizing children's expectations about expertise and incompetence: Halo or pitchfork effects? *Child Development*, 82(5), 1634-1647.
- Kushnir, T., Vredenburg, C., & Schneider, L. A. (2013). "Who can help me fix this toy?" The distinction between causal knowledge and word knowledge guides preschoolers' selective requests for inform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49(3), 446-53.
- Lampinen, J. M., & Smith, V. L. (1995).

- Incredible (and sometimes incredulous) child witness: Child eyewitnesses' sensitivity to source credibility cue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80(5), 621-627.
- Landrum, A. R., Mills, C. M., & Johnston, A. M. (2013). When do children trust the expert? Benevolence information influences children's trust more than expertise. *Developmental Science*, 16(4), 622-638.
- Lane, J. D., Wellman, H. M., & Gelman, S. A. (2013). Informants' traits weigh heavily in young children's trust in testimony and in their epistemic inferences. *Child Development*, 84(4), 1253-1268.
- Lutz, D. J., & Keil, F. C. (2002). Early understanding of the division of cognitive labor. *Child Development*, 73(4), 1073-1084.
- Ma, L., & Ganea, P. A. (2010). Dealing with conflicting information: Young children's reliance on what they see versus what they are told. *Developmental Science*, 13(1), 151-160.
- Pasquini, E. S., Corriveau, K. H., Koenig, M., & Harris, P. L. (2007). Preschoolers monitor the relative accuracy of informants. *Developmental Psychology*, 43(5), 1216-1226.
- Rogoff, B. (2003). *Cultural Nature of Human Developmen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Sabbagh, M. A., Koenig, M. A., & Kuhlmeier, V. A. (2017). Conceptual constraints and mechanisms in children's selective learning. *Developmental science*, 20, e12415.
- Taylor, M., Cartwright, B. S., & Bowden, T. (1991). Perspective taking and theory of mind: Do children predict interpretive diversity as a function of differences in observers' knowledge? *Child Development*, 62(6), 1334-1351.
- VanderBorgh, M., & Jaswal, V. K. (2009). Who knows best? Preschoolers sometimes prefer child informants over adult informants. *Infant and Child Development*, 18(1), 61-71.
- Wellman, H. M. & Gelman, S. A. (1998). Knowledge acquisition in foundational domains. In D. Kuhn, & R. S. Siegler (Ed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ume 2, Cognition, Perception, and Language*, (pp. 523-573). Hoboken, NJ: Wiley.
- Yang, K. S. (1981). Social orientation and individual modernity among Chinese students in Taiw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13(2), 159-170.
- Yum, J. O. (1988). The impact of Confucianism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communication pattern in East Asia. *Communications Monographs*, 55(4), 374-388.

1차원고접수 : 2018. 10. 14.

수정원고접수 : 2018. 11. 23.

최종게재결정 : 2018. 12. 03.

Who Do I Need to Trust Between a Teacher and a Peer? Young Children's Selective Trust When the Teacher's Accuracy Is Low or Uncertain

Jeein Jeong

Ewha Womans University, Early Childhood Education

An informant's previous accuracy is an important aspect to judge credibility of his information. The current study examined whether young children trust a teacher or a peer when the teacher was inaccurate or it is uncertain whether the teacher is more accurate than the peer. Four and five-year-olds trusted the peer's labeling of a toy, but not labeling of an object when the teacher was previously inaccurate and the peer was accurate. In this situation three-year-olds' trust in the peer was at chance level no matter whether the labeling was about toys or usual objects. Interestingly, when the teacher was inaccurate and the peer's accuracy was uncertain, and when the peer was accurate and the teacher's accuracy was uncertain children in all age groups did not readily trust the peer's labeling regardless of the kind of objects. Alongside the result that four- and five-year-olds might trust a teacher more than a usual adult, cultural emphasis on harmony with social norms, the elderly, and teachers and its possible influence on young children's trust in teachers will be discussed.

Key words : *Selective trust, Teacher and peer, Accuracy, Culture*